

고등학생용

신문기사 밑줄 치며 즐겁게 읽기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2024
CONTENTS
목차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활동
주제

01. 신문 기사를 읽고 어휘력 키우기	08
02. 사실과 의견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10
03.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12
04.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14
05. 신문 기사를 이해하며 읽기	16
06. 신문 기사를 분석하며 읽기	18
07. 신문 기사를 비교하며 읽기	20
08. 신문 기사를 요약하며 읽기	22
09. 신문 기사를 종합하여 읽기	24
10. 신문 기사와 다른 미디어를 연결하여 읽기	26
11.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 상황 찾기	28
12.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기	30

VISA (확인서)	33
------------	----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는 초·중·고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어휘력 키우기, 신문 기사 이해·분석·비교·요약하며 읽기, 사실과 의견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등의 활동과제를 수행하며 문해력(文解力·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고 읽기·쓰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NIE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신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5쪽 참조)**가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2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장**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적을 경우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한 날짜 등 ‘나의 활동 메모’(6~7쪽)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33쪽)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알림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 | | | | |
|--|--|---|---|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 |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
|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The JoongAng
중앙일보
http://joongang.co.kr |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 |
|  한겨레
http://www.hani.c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
|  news1
http://www.news1.kr |  연합뉴스
http://www.yna.co.kr |  대한경제
http://www.dnews.co.kr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
|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  경남일보
http://www.qnnews.co.kr |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  每日新聞
http://www.imaeil.com |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
|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  全北日報
http://www.jjan.kr |
|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 |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 |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문장 소감

확인



01

신문 기사를 읽고 어휘력 키우기



신문 기사는 한자어, 시사용어, 사자성어 등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됩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이러한 어휘들을 꾸준히 익히면 어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담긴 의미와 집필 의도를 고민해 보는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어휘력을 기르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조선일보 2022년 3월 14일 34면

데스크에서



정지섭
국제부 차장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례 '우리 천장 지수'가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29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근로·교육·생활 여건을 수치로 산출해 비교한다. 고등교육·노동참여·임금·양육비·유급육아휴직·기업고위임원 등 10개 분야별로 남녀 성별 격차를 산출하고 반영해 종합지수를 발표한다.

선진국들의 양성 평등 실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지수의 '만년 낙제생'은 한국이다. 10년 연속 꼴찌다. 올해는 여성 노동참여율이 터키를 빼고 가장 낮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31.5%를 덜 벌며 최하위였다.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도 8.7%로 꼴찌였으며, 관리직 비율은 15.6%로 일본(13.6%)만 간신히 제쳤다. 평가 대상국 연도별 순위 변동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처럼 앞치락뒤치락 1위를 다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헝가리처럼 푹 떨어지거나, 포르투갈처럼 가파른 오름세를 타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들과 달리 맨 아래에서 일직선을 쭉 그리고 있다.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권 때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들어선 문재인 정권 때도 한국 여성의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음을 보여준다. 올해 우리 천장 지수가 발표됐을 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의 지지층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지역·세대·이념·성별로 분열된 표심은 개표 결과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 정권에 돌아선 젊은 남성의 표심이 야당으로 쏠렸고, 또래 젊은 여성이 여권을 지지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MZ 세대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여성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페미니즘을 비판한 국민의힘과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 퇴행의 두려움을 느낀 여성들 사이에서 차악이라도 뽑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기자는 딸을 둔 40대 아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진 40대 표심 중에는 남아선호·가부장제 영향력을 벗어나 딸과 아들을 차별 없이 키워온 우리 세대의 걱정이 일부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이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현 정부의 위선과 도덕적 타락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한국 여성이 처한 척박한 환경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실질적인 양성 평등 정책으로 밑바닥 일직선인 한국의 우리 천장 지수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5년 뒤엔 여성과 남성 모두로부터 '애썼다'는 덕담을 들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제시된 기사에서 아래 표에 적힌 한자어를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 뜻을 정리해보세요.

한자어	의미
산출(産出)	
격차(隔差)	
적나라(赤裸裸)	
보수적(保守的)	
진보적(進步的)	
차악(次惡)	
차별(差別)	
척박(瘠薄)	
덕담(德談)	

제시된 기사에서 다음의 시사용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뜻을 정리해보세요.

시사용어	의미
유리 천장 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페미니스트	
MZ 세대	

제시된 기사를 읽고 자신이 선택한 핵심어 하나를 고른 후, 그 어휘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핵심어	선택한 이유

제시된 기사의 원제목을 찾아보고 그런 제목을 붙인 의도를 정리해보세요.

원제목	의도





신문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즉 팩트(Fact)를 제시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만 이뤄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 또는 전문가가 '유추'했거나 '전망' 또는 '평가'한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정확히 가려서 읽어내야,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 속 의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며 사실과 의견을 골라내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중앙일보 2022년 3월 22일 12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 41%, 정은경 “정점 더 길어질 수도”

1주새 스텔스 오미크론 15%p 늘어
“병원 포화, 중환자 치료 못할 우려”

파스 로비드 처방 힘든 환자들 위해
먹는 약 라게브리오 10만명분 도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부터 다소 꺾이는 조짐을 보이자 21일 정 부에선 이번 주 중반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미 정점을 지났다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은 방심하기 이르다는 경고를 냈다. 전파력이 더 강한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속히 세력을 넓히고 있어 정점 구간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2차 파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만 9169명으로 집계됐다. 20만 명대 확진자는 열흘 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

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속항원 검사 확진 인정 등 검사 체계 변화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3주차 BA.2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41.4%로 직전 주(26.3%)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21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만 9105명으로 전날 동시간대보다 12만 5051명 늘었다.

정부 내에서 엇갈리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비를 촉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주 전 20만 명대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 40만~60만 명

대 확진자가 나왔던 걸 고려하면 앞으로 사망자는 600~900명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은 포화상태라 앞으로 중환자 치료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늘려 확진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파스 로비드 물량이 없다면 라게브리오를 투입해서라도 위중증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역 당국은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사진) 10만 명분을 금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늦어도 24일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라게브리오는 파스 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될 전망이다.


이우림·어환희 기자




제시된 기사에서 주요 사실은 빨간색, 주요 의견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친 후 아래 표에 정리해보세요.

사실	의견




 방역 전문가들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2차 파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내용을 기사에서 찾아보고, 이 같은 경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골라 정리해보세요.

경고	근거가 되는 사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2차 파고”를 대비해야 한다”	

 제시된 기사에서는 같은 ‘사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두 가지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중에서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기사 속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부터 다소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의견	정부는 “이미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고 경고음을 냈다.
나의 의견	

 방역 당국이 ‘의료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사에 제시된 사실들에 기초해 정리해보세요.





신문 기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읽을 때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사건의 흐름', 즉 전반적인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과 관계가 글의 주된 맥락이고,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등은 글의 설득력을 더하는 부수적인 자료입니다. 기사 읽기를 통해 인과 관계 파악을 훈련한다면, 교과서나 사회과학·자연과학 등 비문학 도서를 읽을 때도 막힘없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조선일보 2022년 3월 18일 2면

美 '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내년까지 9차례 올리기로

**기준금리 0.25%p 인상
5월 '양적 긴축'도 예고**

미국 기준금리가 2년 만에 '제로(0) 금리'에서 벗어났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제로 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지만,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치(2월 물가 상승률 7.9%)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예상에 부합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당장은 시장에 충격이 없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3.77%, S&P500은 2.24% 올랐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고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금융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9~10번 급격한 인상 예고
연준은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 1.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baby step)'을 가정하면 올해 남은 6차례의 FOMC에서 매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서는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밟을 여지도 남겨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내년 연말에는 금리가 2.8%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3~4차례의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까지 합치면 추가 금리 인상이 9~10차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향후 고용 여건이 더 좋아지면 연준은 보다 매파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연준의 통화 정책 역사에 뚜렷한 자취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준 예고대로라면 2004~2006년 사이 17차례 인상보다는 속도가 완만하지만, 2015~2018년 9차례 인상했을 때보다는 빨라지는 것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별개로 양적 긴축(유동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에 돌입하는 시기에 대해 "빠르면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5월 3~4일 열릴 다음 FOMC부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자금을 도로 빨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을 밟자 다른 나라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이 17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10.75%에서 11.75%로 인상했다.

◇국내 가계 이자 부담 40조 늘 수도
연준의 급격한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美연준, 내년말 금리 2.8% 제시
올 6차례 회의서 모두 올리고
내년에도 3~4차례 인상할 듯
예고된 행보... 증시는 되레 반등**

**한국 가계 이자부담 40조 늘 듯
한은이 美연준 기조 맞추려면
올연말까지 기준금리 2% 넘겨야**

위해 한국은행도 현재 연 1.25%인 국내 기준금리를 올해 대폭 올려야 할 압력이 커졌다. 연초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말까지 3차례쯤 기준금리를 올려 2% 안팎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2%에 육박할 것이라고 연준이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올려야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성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



파월 금리인상 발표 보는 뉴욕증권거래소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지난 2년간 '0%'로 묶여있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해 올해 최소 네 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 금리를 올렸다. 올해 추가로 4차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1년 반 사이 7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경우 작년 말 기준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금리 태풍의 영향권에 놓인다. 한국경제 가들은 말한다. 김성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

자 부담이 연간 39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빛이 있는 가구당 연 340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가구마다 많은 빚을 내 주택, 주식 등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금리 인상이 맞아 이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자산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선석·윤진호 기자



제시된 기사는 아홉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단락 앞에 동그라미 번호를 매기고 소단락의 핵심 문장을 찾아 형광 펜으로 표시한 뒤에 정리해보세요.

소단락	핵심 문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시된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원인	결과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 제압	미국 뉴욕 증시 상승
코로나 사태 해결 위해 풀어둔 유동 자금 회수	한국은행, 국내 기준금리 대폭 상승 압력
	한국은 금리 인상 충격 커질 것

기사의 결론 부분에 제시된 ‘한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것이 원인이 돼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조사해 한 편의 짧은 글로 정리해보세요.



04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신문 기사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정책·사회적 화두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선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내세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주제는 대체로 찬반 쟁론이 치열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두루 담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해당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국민일보 2022년 2월 23일 10면

“삶의 질” 높아려다 ‘삶의 타전’ 잃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한창 논의하던 2002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런 광고를 냈다. 경영계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하고도, 주5일제가 완전 정착하는 데 약 8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주4일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제 몇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대한민국은 시간 빈곤사회”라면서 주4일제 도입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제법 있다.

주4일 근무제 찬반의견

- 찬성한다: 515 (51%)
- 반대한다: 414 (41%)
- 모르겠다: 71 (7%)

경제적 여유와 워라밸 중요도 차이

- 경제적 여유가 더 중요: 490 (49%)
- 워라벨이 더 중요: 510 (51%)

국내외 주4일제 시행 기업 사례

주 4일제 시행 및 실험 기업의 기업	한국 주4일 및 4.5일제 시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마시프, 인피크, 아이기스, 모니크 라부, 라벨, 그루파, 앙투르 프리즈 [스웨덴] 토오타 서비스 센터,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인 Brath, 스톡홀름의 웹 개발회사인 Filmundis [영국] 심플리 비즈니스, 이튼은행 등 [뉴질랜드] 유니레버 사무소, 뉴질랜드의 유산 상속 관리 회사 파페주얼 가디언 [스페인] 통신기업 텔레포니카(직원 10%) [일본] 금융그룹 미츠호 파이낸셜, MS지사 주 4일제 (2019년 5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제] 에듀일, 카키오게임즈, 플리웨어, 개인회사 엔플린커넥트, 도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 [4.5일제] 배달의민족 운영세우이한형제들 4.5일제, 북한 핀테크 플랫폼 토스 운영 비버리퍼블리카 주4.5일제 [각주 주4일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 키베(2식주), 어가티 운영사 어가티 캠퍼나, 비로그, SK텔레콤 셋째 주 4일제 등

(자료: 한국지서지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월·화·수·목·일일일... 피할 수 없는 대세 vs 아직은 시기상조

스토리텔링경제

주4일제 실험, 어디까지 왔나

주4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거론한다. 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두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시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편에선 기업 비용 증가, 생산성 하락을 지적한다. 근로 시간 축소가 영세업체와 비정규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4일제 실험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앞다퉀 주4일제 시행하는 기업들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 여러 기업이 주4일제를 이미 실시하거나 시범 도입 후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인사관리협회 2019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체기업 중 주4일제를 도입한 곳은 27%에 이른다. 일본 정부도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주4일제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에듀일은 2019년 6월 '드림데이'라는 제도를 시작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더 쉬는 주4일 근무제대로 직

원들은 하루 8시간씩 주32시간을 일한다. 에듀일에 따르면 초기에 업무 강도가 높았으나,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일차리 나누기로 보완했다. 제도 시행 전 470명이었던 직원은 75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연간 800억원대에서 1100억원대로 올랐다. 우려했던 부작용(생산성 하락, 일자리 축소 등)은 없는 셈이다.

SK그룹의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지주사는 2019년부터 격주로 주4일제를 시행 중이다. 유아한형제들은 2017년부터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버리퍼블리카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요일에 오전까지만 일하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 카키오게임즈는 매일 1회 실시하던 금요일 휴무제를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늘렸다. 한 달로 치면 '주4.5일 근무'다. 금융권도 주4.5일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행은 주40시간을 맞추되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주 4.5일 근무제 실험을 예고했다.

"노동자의 질 향상"

주4일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근거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인 지난해 8월 성인



"삶의 질 향상" 유럽국가서 확산 에듀일 등 국내 기업도 도입 실험

생산성 저하·임금 양극화 부작용 찬성만큼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

4155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3.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는 휴식권 보장과 워라벨 정착(72.4%), 충분한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51.7%), 건강 관리(32.1%), 휴일 증가로 내수 진작(21.2%), 자녀 돌봄(20.1%) 등을 꼽았다(복수 응답).

시간의 양보다 질을 높여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평

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일하는 나라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687시간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27위다.

해외에선 주4일제 실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있다. 영국 레딩대학의 2019년 연구를 보면, 주4일제를 도입한 영국 기업의 64%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도 주4일제 실시 후 생산성이 40%가량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어렵다"

그러나, 찬성만큼 반대 논리도 선명하다.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사업인의 같은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에 부정적 답변을 한 이들은 임금 삭감 가능성(60.4%), 업무강도 상승(45.3%), 생산성 하락(19.6%), 상대적 박탈감(15.4%), 기업 경쟁력 약화(15.1%)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복수 응답).

근로시간 축소를 두고 엄중 간,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IT, 금융 업종이나 공공기관, 전문직 등 근로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업무나 직종에서는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4일제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이 많이 줄고 있는데 동시에 고용률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주4일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지속가능한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세계적 트렌드에 걸맞게 기업 주도로 주4일제 확산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 주도로 주4일제를 정착시키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양극화나 불평등 등의 문제를 정부가 차분하게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 전문직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뒤에야 근로시간 축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amor@kmbi.co.kr




 제시된 기사를 읽고 '주4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쪽이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보세요.

찬성하는 쪽의 주장	근거

 '주4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쪽이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보세요.

반대하는 쪽의 주장	근거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는 무엇 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짧은 글로 정리해보세요.

.....

.....

.....

.....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을 밝힌 뒤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을 근거를 제시하여 구성해보세요.

구분	주장	근거
나의 의견		
예상되는 반론		
재반론		





신문 기사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도 등장합니다. 특히 생경한 어휘와 지명, 인물들이 등장하는 국제 기사를 읽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고를 확장하기에 좋은 활동입니다. 국제 기사를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이해력도 높이는 경험을 해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세요.

※ 출처 : 중앙선데이 2022년 2월 26일 10면

전략적 요충지... 열강들 충돌 때마다 전쟁 포연

김나윤 기자 kim.nayoon@joongang.co.kr

서유럽·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수난사

우크라이나는 서구 강국과 러시아 같은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 중 하나다. 1·2차 세계대전 등 글로벌 세력 재편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발발할 때 주요 열강들이 결코 놓치지 않으려 했던 핵심 영토로 꼽혔다. 서유럽과 러시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러시아와의 태생적 유사성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군사적·경제적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초의 국가가 성립되고 1991년 옛 소련의 품에서 벗어나기까지 1100년의 세월과 냉전 종식 후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수난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나라다. 882년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건립된 키예프 루스 공국은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일대에 거주했던 루스인들이 세운 최초의 우크라이나 국가였다. 이후 1240년 몽골의 침략을 피해 주민들이 동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곳이 지금의 모스크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자신이 키예프 루스 공국의 역사를 계승한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다.

1차 세계대전 전 동쪽끼리 싸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면 유럽 국가들과는 식량과 천연자원 등을 매개로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경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흑토 지대여서 밀·옥수수·보리 생산량이 주변국보다 월등히 많다. 농업 환경이 열악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이유다. 식량뿐 아니라 철광석·석탄·니켈·흑연 등 핵심 원자재 매장량도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며 주변국의 원자재 공급을 도맡아 왔다.

지정학적 위치도 남다르다. 우크라이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

곡물 생산 율등한 '유럽 빵바구니' 해양·대륙 세력 만나는 전략 요충 철광석 등 천연자원 세계적 규모 북방·크림전쟁·세계 1,2차대전 등 주변 열강 대결장으로 영토 유린 최근 친서구·친러 갈려 극한 대립

는 요충지이자 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오가는 관문인 탓에 패권 세력 간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1700년대 말부터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스웨덴이 맞붙은 대북방 전쟁 때는 스웨덴 편에 섰는데 스웨덴이 결국 패하면서 동맹국인 우크라이나 주민들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전쟁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기도 했다.

18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약 120년 동안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둘로 쪼개져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았다. 영토의 약 80%는 러시아 제국에, 나머지 약 20%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분할됐다. 이 무렵부터 러시아 제국 치하의 우크라이나는 점차 러시아의 일부로 전락한 반면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한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영향권에 들면서 상대적으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두 개의 문화권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1853~56년 크림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제국과 유럽 열강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싸움이었다. 표면상으로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흑해 함대 주둔을 둘러싼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충돌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저지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 형태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을 지원 자격하면서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짧은 시절 이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펴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은 우크라이나에 빼어난 역사로 남아 있다. 동서 두 지역으로 나뉘어 동쪽끼리 싸워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이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인들도 연합군에 350만 명, 동맹군에 25만 명이 각각 참전하게 됐다. 이후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폴란드·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분할됐다.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쪼개지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더욱 짙어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레이더 기자에서 한 차량이 24일 러시아군 포격에 파괴됐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집국의 역사

- 1917년 1차 대전 중 독립 선포, 러시아 진압에 유산
- 1922년 소비에트 연방 편입
- 1932-33년 스탈린 탄압에 350만 명 아사
- 1941-44년 나치 독일, 우크라이나 점령
- 1991년 8월 옛 소련 해체기 독립 선포
-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 (강대국 안전 보장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핵 폐기)
- 2013년 야누코비치 대통령, 티와 재후 대선 러시아와 관계 강화 선언
-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시민 혁명 발발
- 2014년 2월 친서방 과도정부 수립
- 2014년 3월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 (도네츠크·루간스크) 분리 독립 선언
- 2014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 중재로 민스크 휴전 협정 체결



격적으로 맞붙은 싸움이었다. 표면상으로는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흑해 함대 주둔을 둘러싼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충돌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저지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 형태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을 지원 자격하면서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짧은 시절 이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펴내기도 했다.

2차 주 독립 선언으로 갈등 고조
2014년엔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불리는 반정부 시위로 몰려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하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면서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략이 아니라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던 땅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크림반도 합병엔 유럽의 영향력이 러시아의 앞마당까지 확대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곳곳이 혼란에 휩싸인 틈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러시아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2개 주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과의 유혈 충돌로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재로 민스크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반군의 무장투쟁과 이에 맞선 정부군과의 교전은 끊임없이 지속됐다. 서구 진영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 속에 '잠재적 화약고'로 불리던 이 지역은 최근 또다시 포연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시된 기사를 읽고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간 주변 열강의 침략을 받아온 이유를 찾아 밑줄을 치고 아래 표의 빈 칸을 채워 보세요.

구분	내용
러시아와 역사적 동질성	
비옥한 흑토, 풍부한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친러시아’의 두 파로 나뉘어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극한 대립을 반복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 해보세요.

크림반도(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루간스크)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의 원인과 양상을 간단히 요약해보세요.

제시된 기사 내용과 아래 내용을 종합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짧은 글로 정리해보세요.

우방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등을 맺지 않아 미군의 자동 참전 장치가 없다.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 전이어서 나토군 역시 나서기 어렵다. 결국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움 결심이 있다면 6·25전쟁 때처럼 유엔군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에 나선 만큼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조차 쉽지 않다. <중앙일보, 2022년 2월 26일 3면 기사 일부 발췌>





분석하며 읽기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문장별, 문단별로 글의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의 관계를 따져보는 읽기를 말합니다. 분석하며 읽기의 좋은 사례는 신문 칼럼입니다. 칼럼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분석하며 읽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한겨레 2021년 6월 7일 27면

침묵의 바다를 물려줄 것인가



기고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몇년 전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다. 꼬리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맨 앞의 엔진칸을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실행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다. 달리는 열차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누가’ 엔진칸을 차지하느냐가 겨우 달라질 뿐이라는 것을. 결국 시스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열차를 박차고 나가야 한다.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자명하다는 것을 영화는 너무 잘 보여줬고 의외의 엔딩 장면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필자는 지난 몇년 동안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온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과 국가관할권외원지역, 즉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공해(公海, high seas)를 보호하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기구에서의 관련 조치들이 제·개정되는 과정을 관찰해왔다. 이 과정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해양 보호가 이미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위 핫한 어젠다로 부상하는 추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국익’이 곧 국내 관련 산업 보호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답답한 면을

보였다. 이러한 국제 협상의 배경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탓이다. 또한 이들의 개별 성향에 따라서 관련 환경단체들과의 관계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부 대응을 지원하는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은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에 치우쳐 있고 심지어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결연함까지 보인다. 물론 몇년 전과 비교하면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기는 하나 너무나 미약하다. 달리는 설국열차 안에서 엔진 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른 온도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특히 이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마평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다시금 확인시켜 참담함을 줄 뿐이다. 해양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에게 국제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물 조급 폐지 협상,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이주 선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과 철학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삼면이 바다임에도 해양 보호는 늘 뒷전이고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해 어떻게든 해양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높은 보호 수준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요청하면 어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돌아올 뿐이다.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혼획 고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 역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당장 시행할 정책이 아니며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 명제 아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은 같은 어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정말 해양생태계가 기막혀할 일이다.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하지 않다. 자원 탐사와 채굴을 위해 심해저를 파헤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해상풍력 건설을 마구잡이로 해대고, 오염물질을 마구 버려도, 무엇보다 남획과 혼획이 만연해도 멀쩡할 만큼 바다는 무한한 자정능력과 복원력을 갖고 있지 않다.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필름 <씨스피라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너무나 잘 드러났다. 무엇보다 우리의 해양생태계는 이러한 위협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살아남기에도 벅찬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찬 ‘침묵의 바다’가 될 것이다. 해양 정책의 방향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정부 부처 시스템으로 보전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칼럼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문단별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해보세요.


단계	내용
주제	
기(起)	
승(承)	
전(轉)	
결(結)	

※ 기승전결에서 기(起)는 이야기를 일으키는 단계 도입부, 승(承)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단계 전개부, 전(轉)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단계 전환부, 결(結)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계 맺음부를 말함.

 제시된 기사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라는 표현은 관용어(慣用語)입니다. 뜻을 정리해 보고 신문 기사에서 자주 쓰는 관용어를 찾아보세요.

관용어(慣用語)	의미
냉탕과 온탕으로 오가다	

※ 관용어(慣用語)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를 말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만 정리해보세요.

- ①
- ②
- ③



07

신문 기사를 비교하며 읽기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를 비교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관점(觀點)’입니다. ‘관점’이란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을 말합니다. 신문 기사에는 그것을 쓴 이의 이름을 적은 ‘바이라인’이란 것이 꼭 붙습니다. 이는 기사를 쓴 기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기사를 비교하며 읽게 되면 화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며,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기사와 비교하며 읽기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세계일보 2022년 3월 3일 27면

설왕설래

지난달 1일 울산에서 심야 시간대 무인 점포 결제기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외에도 20여회 금품을 훔친 A군은 체포 상황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저항했다.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B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당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했다.

형법 9조에 만 14세 이하 소년 즉 촉법소년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소년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문제다. 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9년 9376건에서 2020년 1만 112건, 지난해 1만100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범죄 수법과 잔혹성

촉법소년



이 성인 범죄 못지않아 국민의 원성이 높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4년 전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프랑스는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지난달 25일 공개 후 한국 1위, 글로벌 7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만큼 소년

범죄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드라마는 각종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나는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할 만큼 단호하던 심 판사는 갈수록 “소년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혐오한다” 쪽으로 시각이 변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논쟁에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범이 교화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촉법 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정리한 후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필자의 ‘관점’	자기 생각



 '설왕설래(說往說來)'와 같이 신문 기사에 사용된 사자성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세요.


단어	의미
설왕설래	겉 뜻은 '말들이 오가다'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다'는 뜻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소년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찾아 스크랩한 뒤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세요.

 스크랩한 신문 붙이는 곳
 *자료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출처: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문제점	
해결방안	

 '촉법소년'으로 사행시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보세요.

촉	
법	
소	
년	



요약은 글이나 문장을 요점만 간추려 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문장이나 문단의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단계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따른 요약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요약하며 읽기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동아일보 2022년 3월 17일 22면

코로나 탓에 심해진 혈액 부족... 인공혈액에 '시선 집중'

우리나라 인구 중 헌혈자 5% 불과 외출 꺼리고 단체 헌혈 줄어 '비상' 코로나 상황 나아져도 해소 미지수 줄기세포 등 활용한 인공혈액 기술 해외 선진국선 임상시험까지 진입 기조 역량 갖춘 韓, 정책 보조 필요



1월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혈액 보관 냉장고가 텅 비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이 줄어드는 등 혈액 채고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인공혈액 개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DB

‘#김금헌혈요청 #혈액절대부족’
16일 기자의 휴대전화로 도착한 대한적십자사 문자메시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혈액이 부족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혈액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 인구 대비 헌혈자 수인 헌혈률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5.7%에서 5.0%로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데다 단체 헌혈도 줄었다. 혈액 보유량이 3일치 미만일 때 발령되는 ‘혈액 보유 주의경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5회 발령됐지만, 2020년에 13회로 크게 늘었다. 혈액 관련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이후에도 혈액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만성화된 혈액 수급 불균형**
혈액 부족 상황이 만성화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발바탕에 깔려 있다. 혈액 수요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자다.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는 2015년 31만90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늘었다. 50대 이상의 적혈구제제 수혈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49만 건에서 165만 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헌혈에 나서는 주

요 연령대인 10대와 20대 인구는 2015년 1240만 명에서 2019년 1180만 명으로 줄었다.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 부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범정부 헌혈 장려 협의체인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신설했다.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찾아가는 헌혈의 날’을 운영해 헌혈 참여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각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혈에 나서거나, 적정 재고량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세계 각국서 연구하는 인공혈액**
사람의 헌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인공혈액이다. 인공혈액은 혈액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기존 혈액에 비해 보존 기간이 길고 희귀혈액도 공급할 수 있어 헌혈 부족에 대처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지금도 인간의 제대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적혈구로 분화시켜 인공 적혈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공혈액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혈구 수가 한정돼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동물세포 기반의 산소운반체(HBOC)나 화학물 기반 산소운반체(PBOC) 등 ‘혈액 대체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 새로 주목하는 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혈액의 구성성분인 적혈구와 혈소판 등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 혈액 대체용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수혈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인공혈액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확보에서 더 나아가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단계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해 5월 인공혈액의 임상 적용과 대량 생산을 목표로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본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역분화줄기세포 유래 인공혈소판 개발에 성공했고, 영국 역시 지난해 국립혈액장기원과 국립보건연구소의 지원으로 세계 최초 인공적혈구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인공혈액 기술 통합개발 필요**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진이 적혈구 생산의 기


초 기술을 확보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역시 어느 정도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주로 개별 연구자들의 단발성 과제 위주로 연구가 이뤄져 이를 묶어줄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15년 동안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과 제조, 평가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혈액 생산·제조를 위한 공동 협력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어 기술개발과 제조, 규제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보건으로 연구개발(R&D)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이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안에 있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곳은 민간기관이 도전하기 어렵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의료 문제를 장기 연구하는 기관이다. 김예은 기자 yeoh@donga.com

제시된 기사를 읽은 후 기사의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단계별	고려 사항	내용 요약
문제 상황 제시	심각성을 부각	
원인 분석	개조식으로 정리	
해결을 위한 노력	기준을 세워 분류	

※ 개조식은 글을 쓸 때에 글 옆에 번호를 붙여 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말함.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대해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에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의료 과제 세 가지를 제시해보세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대한민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공익적 가치가 있는 3대 의료 과제

①

②

③

 인구 대비 헌혈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승-전-결’ 형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제시된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주요 신문을 참고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보세요. 광고에는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넣어주세요.





신문 기사 종합하여 읽기에서 '종합'은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하나가 되도록 묶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 기사 종합하여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범주화하거나 새롭게 편집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다루는 사건 사고 기사를 예측해보거나, 제시된 신문 기사에 기초하여 핵심 내용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종합하여 읽기 활동입니다.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읽기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국민일보 2022년 3월 15일 17면

수도권 집값 꺾인 사이 지방은 청약률 상승

집값 하향 안정 전국적 현상 수요자 관심, 중소도시로 이동

수도권 집값 불씨가 꺼진 사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약 마감률이 상승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로 수요자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3월 15일~6월 30일) 지방 중소도시 49곳에서 총 3만281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기준)가 일반분양된다. 지역별로 충청권에서 분양물량의 45%에 달하는 1만3720가구가 나온다. 이어 경남 6508가구, 경북 2797가구, 전남 2524가구, 강원 2395가구, 세종 1030가구, 전북 741가구, 제주 566가구 순이다.

수요자들의 지방 중소도시 관심은 올해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 중소도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54.8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순위 청약 마감률(36.36%)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수도권 1순위 청약 마감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58%로 떨어졌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집값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는 다소 식었다. '청약 불패' 신화가 이어지던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당첨 최저가점은 낮아졌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는 10점대 가점의 당첨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집값 하향 안정은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지방 청약시장에서는 수도


권 못지않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일부 등장했다. 지난 1월 전남 나주시에 공급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929가구(특별공급 제외) 청약 모집에 1순위에서만 2만여명이 신청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2.16대 1에 이르렀다. 지난 2월 경북 포항시에서 분양된 '포항자이 디오션'은 평균 124.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정주여건은 우수하고, 개발호재까지 갖춰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방 비규제 단지를 주목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제시된 기사를 읽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세요.

용어	설명하기
청약률	
임대	
일반 분양	
거래 절벽	
개발 호재	



 제시된 기사의 핵심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두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올해 상반기(3월 15일 ~ 6월 30일) 지역별 분양 물량을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 보세요.
(단, 충청권, 경남, 경북, 전남, 강원, 세종, 전북, 제주 순서로 표현해보세요.)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만화 등으로 표현해보세요.





신문 기사를 읽고 핵심 내용을 여러 미디어와 비교해보는 것이 연결하여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식입니다. 이런 활동을 할수록 각각의 미디어가 지닌 차이와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다른 미디어와 연결하여 읽기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한국일보 2022년 1월 18일 26면

기억할 오늘 불의 내습

무심코 버린 생수병, 투명 합성수지가 돋보이 렌즈처럼 빛을 모아 낙엽 등에 불을 낼 수 있다. 태양 복사선이 모여 일으킨 화재라고 해서 ‘수렴 화재’라 불리는 이 현상의 원인물체(집속물체)는 부탄가스의 오목한 하부, 다양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빛물이 고인 비닐 하우스, 자그마한 유리구슬 등 다양하다. 자연 발화는 그 밖에도,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이 발효·산화해서 일으키는 불, 페인트나 잉크, 튀김 기름 찌꺼기 등의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발화, 성냥 원료로도 쓰이는 황린처럼 상온에서 불안정한 물질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낙뢰다.

인류는 불을 통제하고 이용하게 되면서 일상에서 불의 난폭함을 경험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지만, 문명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아웃백 초원지대에서 불은 지금도 내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조건과 전망은 문명 자체가 낳은 재앙, 즉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문명에 점점 불리해지는 중이다.

2019~20년 연쇄적으로 발생한 호주 대형 산불은 29명의 인명과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을 희생시키며 5,900여 채의 가옥을 포함 뉴사우스웨일스 해안지역을 초토화했다.




2020년 1월 인공위성이 약 일주일간 촬영한 호주 부시 파이어 발화 지도. NASA

발화의 원인은 번개였지만, 불을 키운 것은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섭씨 40도를 웃도는 열기였다. 호주 산불, 엄밀히 말해 ‘부시 파이어(bush fire, 미개밭 초원관목지대 화재)’는 근년 들어 40% 이상 빈도가 늘고 규모도 커져 시드니 등 문명의 공간에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추세다.


2003년 1월 18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 들이닥친 대형 산불도 스트롬로 포리스트 공원 등 인근 자연보호지역을 숏데미로 만들고 480여 채의 가옥과 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8일 번개로 자연 발화한 불은 여름 고온과 시속 150km의 건조한 열풍을 타고 도시를 덮쳤고, 불의 위세에 호주 소방당국은 수도를 온전히 방어하지 못했다. 최윤필 선임기자




 제시된 기사를 중심으로 '수령 화재'의 의미와 사례를 정리해보세요.

 제시된 기사에서 두 건의 대형 산불 사례에 밑줄을 치고 다음 표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지역	시기	발화 원인	피해 상황

 수령 화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생수병에 의한 산불 사례를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아보고 다음 표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유튜브	유튜브 제목	
	유튜브 주소	
	유튜브 주요 내용	
페이스북	페이스북 제목	
	페이스북 주소	
	페이스북 주요 내용	

 기사를 읽고 주요 내용을 유튜브, 페이스북과 비교해보는 연결하여 읽기를 통해 배운 점을 간략하게 서술해보세요.



11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 상황 찾기



신문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의도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좌절이나 갈등 때문에 방해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일이나 상황을 뜻합니다. 신문 읽기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건 사고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문제 상황을 탐색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한겨레 2022년 3월 11일 19면

한은 “국내 물가 오름세 장기화 가능성”

국제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에 인플레이 기대심리로 고물가 지속 우려 “집값 상승 둔화에도 불안요인 여전”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우리나라도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경제활동 재개와 탄소중립 추진 등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식료품 가격은 곡물 생산 차질로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져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

려했다. 한은이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경제는 단계적인 방역조치 완화로 민간소비가 다시 회복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인데다 가계소득이 늘고 기업실적도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폭이나 달러화 강세가 시장 예상을 넘어설 경우 불안이 커질 것으로 봤다. 취약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압력이 커지고 대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금

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상승폭은 기업대출금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금리의 월평균 변동폭(2021년 6월~2022년 1월)은 1.02%포인트였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금리는 0.63%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가 영향을 준 것이다. 대신에 은행들은 기업엔 대출을 늘리려 완화적 태도를 유지했다.


최근 주택가격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불안요인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수그러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잠재적 주택매입 수요도 대출규제 강화로 일시적으로 억제된 상황이어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제시된 기사를 읽고 경제 용어를 다섯 개 정도 찾아 동그라미를 치고 뜻을 설명하세요.


경제 용어	설명하기



 제시된 기사를 읽고 핵심어 다섯 개를 뽑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 뜻을 설명해보세요.

핵심어	설명하기

 앞서 뽑은 다섯 개의 핵심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을 작성해보세요.

 '물가 오름세'에 초점을 맞춰 관련 내용에 밑줄을 친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제시된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제시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그냥 두면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본인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심층적 논의 전개’, 발상이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각적 논의 전개’, 주장이나 근거의 새로움에 입각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독창적 논의 전개’ 등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전개 방법을 익히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신장됩니다. .

다음 기사의 주요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읽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세계일보 2022년 3월 18일 10면

“수도권매립지 20년 뒤 포화”... 또 연장 갈등

(3-1매립장)

직매립금지 따라 매년 반입 줄어 당초 2025년 포화 전망보다 여유 서울·경기 “포화때까지사용 연장” 인천 “피해 커 계획대로 종료” 고수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둘러싸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3-1매립장이 2042년 초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는 당초 설계상 예상했던 2025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사용을 시작한 3-1매립장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폐기물이 매립된다. 총 1819만t 용량으로 지난해 말까지 888만t(전체의 48.8%) 매립이 진행됐다. 앞으로 쓰레기 931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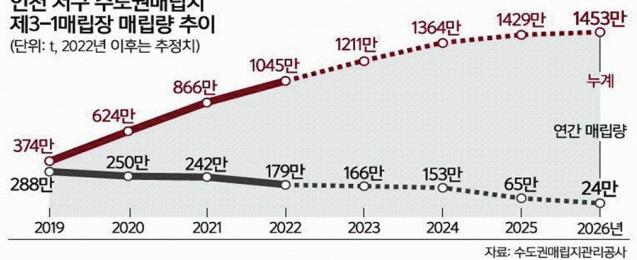
t을 추가로 매립할 수 있던 얘기다.

공사는 향후 반입량을 추산하며 지난해 242만t 대비 26.0% 감소한 올해 179만t에 이어 2023년 166만t, 2024년 153만t으로 집계했다. 이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65t, 24t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2026년 수도권 내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올해부터 매립 금지 항목에 대형 건설폐기물을 포함시키고 2025년에는 중간처리 잔재물까지로 범위를 더욱 넓힌다.

공사는 2026년 이후에 예상되는 연간 폐기물 매립량이 최소치인 24만 수준이란 점을 고려, 2042년 초까지는 3-1매립장 내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2026년에 매립량이 10분의 1로 크게 적어질 것”이라며 “2025년 말 폐기물 매립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슬러지 및 음폐수 재활용 시설만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3-1매립장은 설계 당시 2025년 8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매립량 추이 (단위: t, 2022년 이후는 추정치)





월쯤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3개 시·도 기초자치체별 1년치 생활 폐기물을 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진 반입 총량제와 폐기물 감축 정책의 단계적 시행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포화 시기까지는 3-1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가 2015년 6월 체결한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등을 전제로 3-1매립장을 쓰도록 돼 있다. 4자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장소 확보가 안 될 경우 잔여부지를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인천시는 환경·경제적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2025년 종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해 용진군 영흥면 내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독립과 자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포화 시기 변동과 관계없이 2025년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제시된 기사의 핵심 내용을 헤드라인(주요 기사에 다는 제목)을 참고하여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제시된 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문을 정리해보세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주체별 문제 상황을 다음 표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갈등 주체	요구 사항	문제 상황
인천시		
서울시·경기도		

 앞서 정리한 갈등 주체에 따른 문제 상황의 해결책을 다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제시해 보세요.

갈등 주체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의 다각적 해결책
인천시		
서울시·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두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대원칙을 세 가지 정도 마련해보세요.

①	
②	
③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_____

강 홍 준

MEMO 

Lined area for writing a memo,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MEMO 

A large section of the page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Lined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발행일 | 2022년 6월 16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권영부 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영민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형수 중앙일보 국제팀 기자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강홍준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